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유언 없이 떠나

김우중 별세

향년 83세...아주대병원 빈소 평소 소신대로 '소박한 장례' 정·재계 등 조문객 발길 이어져

9일 숙환으로 별세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장례는 김 전 회장이 평소 밝힌 뜻대로 소박하게 치러졌다. 10일 오전 수원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진 빈소에는 가족들과 옛 대우그룹 관계자들 일부가 일찍부터 조문객을 맞을 준비를 했다.

건강 악화로 아주대병원에서 지난해 말부터 11개월간 입원 치료를 해오던 김 전 회장은 전날 오후 11시50분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평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지난 7일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한 이후 가족들은 마지막 준비를 했고, 전날 밤 부인과 자녀, 손주들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영면에 들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임종 직전 별도의 유언은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고 장 회장은 전했다. 투병 중에도 주변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곤 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빈소는 비교적 소박하게 차려졌으며 오전 10시부터 조문객들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생전 "요즘 장례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소박하고 조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유족들도 이에 동의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고인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천주교식으로 진행된다. 유족은 부인 정희자 전 힐튼호텔 회장, 장남 김선협(주아도니스 부회장, 차남 김선용(주벤처지홀딩스 대표, 장녀 김선정(제)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사위 김상범 이수그룹 회장 등이 있다.

첫 조문객으로는 박형주 아주대 총장이 다녀갔다. 이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홍석형 중앙홀딩스 회장, 홍사덕 전 국회의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이 차례로 다녀갔다. 빈소 내실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

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이은열 코오롱 명예 회장, 정몽구 HDC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보낸 조화들도 자리했다. 정관계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조화를 보냈다. LA다저스 소속 야구선수 류현진씨도 조화로 고인을 애도했다.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장지는 김 전 회장의 모친 선영이 있는 충남 태안군에 마련될 계획이다. /연합뉴스

#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 경영 매진

김우중은 누구

9일 별세한 김우중(사진) 전 대우그룹 회장은 재계 2위 그룹의 총수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도를 내고 해외도피 생활을 하는 등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보냈다.

삼성과 현대를 키운 이병철과 정주영 등 1세대 창업가와 달리 김우중 전 회장은 켈러리맨으로 출발한 1.5세대 창업가로 분류된다.

김 전 회장의 '세계경영'의 성공신화는 만 30세 때인 1967년부터 싹을 틔웠다. 섬유 수출업체인 한성실업에 근무하던 '청년 김우중'은 트리코트 원단생산업체인 대도섬유의 도제원씨와 손잡고 대우실업을 창업했다. 대우실업은 1968년 수출 성과로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급성장 가도를 달렸다. 1969년 한국 기업 최초로 해외 지사(호주 시드니)를 세웠고, 1975년

켈러리맨으로 출발해 30세에 대우실업 창업 30년만에 재계 2위까지...IMF 직후 부도로 그룹 해체 장기 해외 도피 중 베트남 등서 청년사업가 양성

한국의 종합상사 시대를 연 이후 김회장이 이끈 대우는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창구가 됐다. 1973년에는 영진토건을 인수해 대우개발로 간판을 바꿔 달고 무역전문인 대우실업과 합쳐 그룹의 모기업격인 주대우를 출범시켰다. 이어 1976년에는 육포조선소를 대우중공업으로 만들었고, 1974년 인수한 대우전자와 1983년 대한전선 가전사업부를 합쳐 대우전자그룹의 주력으로 성장시켰다.

대우그룹은 또 예과도르(1976년)에 이어 수단(1977년), 리비아(1978년) 등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통해 해외사업의 터를 닦았다. 김 전 회장의 거침없는 확장

경영의 결과 창업 15년만에 대우는 자산 규모 국내 4대 재벌로 성장했다. 김 전 회장은 1980~90년대에 저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에서 강조한 대로 '세계경영'에 매진했다. 특히 1990년대 동유럽의 몰락을 계기로 폴란드와 헝가리, 루마니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자동차공장 등을 인수하거나 설립하며 세계 경영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대우는 1998년말에는 396개 현지법인을 포함해 해외 네트워크가 모두 589곳에 달했고 해외고용 인력은 15만2천 명을 기록했다. 당시 고인은 연간 해외 체류 기간이 280일을 넘기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1997년 11월 닥친 외환위기는 세계경영 신화의 몰락을 불러왔다. 김대중 정부 경제관료들과의 갈등과 미찰을 빚으면서 대우그룹은 1999년

말까지 41개 계열사를 4개 업종, 10개 회사로 줄인다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놔서, 1999년 8월 모든 계열사가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그룹은 끝내 해체됐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08년 1월 특별사면됐다. 말년에 '제2의 고향' 베트남 등을 오가며 글로벌 청년사업가 양성 프로그램에 주력하며 명예회복에 나섰다. 고인은 17조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과 세금을 내지 못하고 1년여 투병 생활을 하다 생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 여수산단 환경개선 실태조사 추진 속도

용역 행정지원기관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 선정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 환경 실태 및 주민 건강 역학조사를 위한 용역 행정지원기관에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가 선정됐다.

전남도는 여수산단 환경관리 현안을 해결하고, 최적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1차 회의를 지난 9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20여 위원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들은 여수산단 기업체 환경 개선대책 검토 방안과 주변 환경 실태조사,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가장 큰 쟁점인 여수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 시행 방안과 관련해선 용역 행정지

원기관을 전남녹색환경 지원센터로 결정했다. 다음 회의에서 과업지시서 최종안과 용역비 등을 확정한다.

기업체가 약속한 환경개선대책 투자액은 4000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환경 개선 투자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행정기관, 시민대표 등으로 지원단을 구성해, 대기환경학회 추천 전문가 2인의 검토를 받아 2020년 1월께 검토 결과를 민·관 거버넌스 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환경 개선대책 투자계획에 대한 전문가 검토 추진상황과 과업지시서 최종안, 여수산단 환경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여수산단 환경관리 대책에 대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호남권 전력산업 발전' 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상량식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건립 상량식

호남권 전력산업 발전을 이끌 한국전기연구원 광주 분원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10일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단지에서 광주 분원 건립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량식을 열었다. (사진) 한국전기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전기전문 연구기관으로 경남 창원에 본원, 경기도 안산과 의왕에 2개의 분원을 두고 있다.

광주 분원은 건립비와 시설비 등 742억원을 투입해 도시첨단단지 9만9000여㎡에 건립된다. 내년 6월 개원 예정이다. 1분부, 3센터, 1실 조직규모로 40명이 근무한다.

광주시 핵심 산업인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산업 육성을 위한 분산 전력·전력변환 시스템 기술 개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종 등을 한다.

광주 분원은 도시첨단단지 일대를 저탄소(Decarbonization), 분산전력

(Decentralization), 디지털(Digitalization) 등 'D3'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 건축면적 6422㎡ 규모의 광주전력변환연구시험센터를 구축하고, 분산전원 모의 장비 등 32종의 장비도 갖출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시험 인프라 구축으로 인근 에너지 밸리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인증 시험을 받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국전기연구원은 기대했다.

최규하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은 "광주 분원 설립은 창원 본원, 수도권 2개 분원과 함께 삼각 축을 통해 전기·에너지 분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국전력 등 인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호남이 전력 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 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케냐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광 266-1920	문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안 222-8171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433-1503	우산 433-1503	
동구	남광 675-5530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중하 222-9054	충장 222-8171	
남구	남부 652-0175	백운 651-1833	봉선 675-5530
	송하 675-6605	진월 671-7276	
서구	광천 382-5788	상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천 376-7153	치평 376-6511	용암 603-0311
	화정 369-1625		
광산구	운남 952-1687	월곡 959-1920	침단 973-2900
	하남 955-0451	광산 944-0444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전월세 특약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방 총용 1억3천
- 서구 미락동 도로점 땅 378㎡ 정기투자에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땅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복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달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 최고 평당 23만원
- 영광군 영산면 신성리 땅 2648㎡ 주택 총용 전원생활 적합 1억7천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무안 용탄면 영산강점 48900㎡ 펜션 14개 등 요양시설 등 복합 교환가 29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복합 6억
- 제주시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복합 25억 약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건물

- 운임동 아파트상가 지하 205㎡ 매입 2억 청구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1200 매도 26억
- 월산동 외곽도로 농협 부근 6차선점 244㎡ 건물신축적합 13억2천
- 산수동 공무원아파트부근 도로점 땅 305㎡ 건물 519㎡ 5천에 180 임대중 11억
- 동성동 상공회소 뒤편 소방도점 상가주택 땅 156㎡ 건물 140㎡ 4억2천
- 운임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뎀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대지 등과 교환원, 매도는 5억-7억임
-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광의면) 11050㎡ 다세대·빌라·요양시설 적합 14억5천
- 나주시 봉황면 전원주택지 8307㎡ 위치·전망 총용 6억4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다세대 적합 은행 6억 교환 가능 9억5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 옆 문암

[요양병원] 부지매매

[힐링센터]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률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한옥식당 임대  
공장형 카페 건물 임대

- 한옥식당용도: 현재 돼지갈비전문점 한식전문점 또는 채식부페 적합
- 숯가마 찜질방 용도  
공장형카페 또는 대형 수산물 직판식당 적합
- 넓은주차장, 남평-화순 4차선 확장으로 접근성 용이
- 임대조건 상담 후 결정

소유자 직접 상담

010-7570-7525 (남평읍 풍림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